



‘세월’아 전해다오. 기적의 소식을

21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사고해역의 날씨는 맑았고, 파고는 0.5m로 수색 구조작업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연합뉴스

성난 유가족들 “정부 못믿겠다... 부검도 불사”

익사 아닌 질식사·저체온증 뎀 구조 적절성에 문제
침몰 사고 1주일... 밝혀진 것 하나 없는 불신의 바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의 수색·구조작업을 바라보는 실종자 가족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국민에게 도와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 이어 일부 가족들은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밝히려하며 차디찬 바다 속에서 물으로 옮겨질 가족 시신에 대한 부검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별건 대낮에

200명 넘는 승객이 여객선과 함께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는데도, 배 안으로 제대로 진입조차 못한 정부의 구조 활동과 우왕좌왕하는 대처 능력을 바라보는 국민의 실망도 극도로 커지고 있다.

17살 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Y씨는 20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부모로서 어떻게

세월호 인명 피해 상황	
탑승 476명	구조 174명
실종 237명	사망 65명
※ 21일 오후 8시 현재	

숨졌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며 향후 부검을 의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다디게 진행됐던 구조 작업 등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에 따른 것인지 알아봐야겠다는 부모의 한(恨)이 읽히는 대목이다.

그는 이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통화로 “원하는 유가족에 한해 시신 부검을 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면서 “(장관에게) 유가족 측이 원하면 제 3자의 법의학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주검으로 돌아온 시신이 “방금 목욕하고 나온 것처럼 매우 깨끗하다”며 통곡하는 가족들도 많다. 일각에서는 더딘 구조 작업이 옛세제 이어지면서 더 이상 수색 작업이 지

체될 경우 실종 가족들을 못 알아볼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도 수색 작업을 2~3일 내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정부측에 전달한데다

이 때문에 수색 작업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아야 하지 않겠냐며 부검을 고민하는 분위기도 가족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허술한 신원 확인절차로 시신조차 뒤바꾸는가 하면, 실종된 가족을 구조자 명단에 포함하기도 했던 탓에 오죽했으면 가족들이 부검을 고민하겠냐는 반응이다.

실종자가 사망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뒤늦게 들어온 미국 원격조종 무인잠수정(Remotely-Operated Vehicle·ROV)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면서도 이날 오후 7시 현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바라보는 국민의 수사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9년째가 넘었지만 여태껏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데 따른 답답함이다. 특히 당시 급격한 항로변경(변침·變針)으로 인해 세월호가 침몰로 이어졌

을 것이라는 수사 내용과 왜 급격한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침몰 사고 당일 인근 해상에서 작업을 하던 어민들이 상선 3척과 세월호를 봤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갖은 의혹으로 공금증만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장에 있었던 선장·항해사·조타수 등을 조사했음에도 국민의 공금증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긴박한 상황에서 선장이 VTS와의 교신을 1등 항해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비운 점도 명확한 설명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진도 VTS와의 교신 상황 등도 비공개하다 뒤늦게 내놓으면서 뒷말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항해사 등 4명 체포

합수부, 유기치사 혐의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항해사 3명과 기관장 등 선원 4명을 체포했다.

합동수사본부는 21일 1등 항해사 강모·신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모두 4명을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새벽 2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이날 중 2차 조사를 하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강씨는 세월호가 침몰하던 시점에 진도 해상교통안전센터(VTS)와 교신했던 당사자다. 당시 다른 선원도 일부 교신했지만, 선장은 교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총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교검 차장감사는 “직위와 임무 등에 비춰 구속된 선장 등 다음으로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 할부
062)226-0001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LIRIKOS

마린콜라겐으로 딱 차오르는 피부-
고농축 탄력 앰플

리리코스 마린콜라겐 V 앰플

주름만큼이나 심각한 피부노화의 징조는 바로 탄력저하-
리리코스 마린콜라겐 V 앰플은 농축하고 농축한 입도적 함량의
마린콜라겐이 무너진 피부에 힘있는 탄력을 채워드립니다

*리리코스는 카운셀링 전문 채용으로 뷰티어저 및 주요 백화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 문의: (주)이코리코스 고객 서비스 센터 080-023-5454 www.lirikos.co.kr www.facebook.com/lirikos.kr